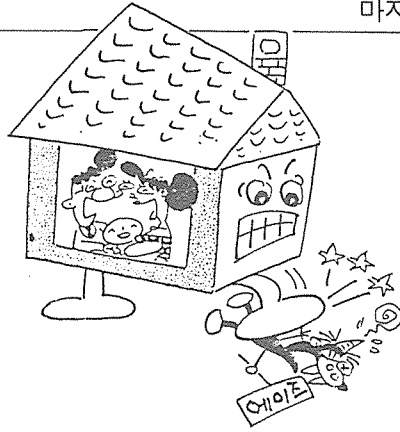


감싸막을 넘어서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나리에게 오히려 넉넉한
생활자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엄마같이 푸근한
보건 소장님



소담과 고모자성
얘기를 들려주며
나리의
신앙 생활은
다져 주었던
전도사님



예쁜 아가까지
등에 업고 나타난
단래와 철이 부부



며칠간 휴가를 즐기
갈 계획이란다

